눈과 귀의 올바른 사용법

(민10:11~36)

29.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0.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31.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눈과 귀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눈과 귀의 올바른 사용법'

살면서 요청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양한 방면의 스펙이나 많은 지식들이 필요해서 배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내 몸에 달린 눈과 귀, 좀 더 확장하면 5감관이 있어서 눈 코 귀 혀와 촉감을 느끼는 피부,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눈과 귀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상천지를 돌아다녀 봐도 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들에게 나타난 치명적인 증상 중의 하나가 내 몸에 붙어있는 눈과 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이 방법이 의학책에 의하면 올바르

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5감관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도 5감관 중에 두 개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감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십자가 생활화를 실제로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의 주 내용으로, 바로 매일매일 매순간 삶에서 십자가를 5감관에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꼭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등과 분리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곧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에게 십자가 생활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 생활화는 5감관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 후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의 11개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었던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본문에서 모세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언급됩니다.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함께 갈 것을 요청하는데 그에 대해서 30~31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가장 앞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따라 멈추고, 오래 멈추게 되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법궤가 앞장서고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처남 호밥에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는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너무 궁금해서 주석을 보니 ‘성숙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간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겸손한 태도로 자신보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히11: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 남부에 있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의 남부 끝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 거리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를 거치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오는 거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가면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말씀만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의 행로를 기준으로 삼아 볼 때에, 전문가의 지식을 구해서 광야에서 여정을 행해야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경우에는 이 인도하심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고 추구하면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최후의 궁극적인 결정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외에 전문가나 지혜로운 자나 경험자나 권위 있는 자의 지식이 보충적으로 필요하거나, 내가 행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실 수는 있지만 이때에도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쓰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론을 '모세의 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애굽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모세가 아론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말을 잘할 것을 기대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대국이었던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처벌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자체가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애굽의 전문가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250만 명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밥이 광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 칠 줄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호밥과 하나님이 같이 동원된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구름을 멈추셨는데, 호밥의 경험으로는 더 가서 진을 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 진을 칠 것입니까? 반대로 호밥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진을 지차고 하는데, 구름이 계속 이동한다면 이스라엘은 호밥의 말을 듣고 여기서 진을 칠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는 이 말에 실마리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라는 것은 모세가 대표하는 250만 명의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250만 명의 눈은 광야 행군 시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호밥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으므로 광야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호밥의 도움이 필수적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꺼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게 될 때에 선민에게 반드시 요구되고 확인되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으로 우리의 눈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법궤가 앞서가고 여호와의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에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사

건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보는 것을 없는 것으로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호밥에게 부탁을 하며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호밥이 광야의 전문가인데 이스라엘 250만 명 전체가 호밥보다 광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없으므로 호밥은 살아있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호밥보다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무지를 일깨워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름기둥을 따라 법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 눈에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자면 판단할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지만 호밥보다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살아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밥보다도 무지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 눈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가나안 정탐에서 나타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선진 문명과 그들의 장대함과 발전시킨 철기문화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들의 눈이 본대로 판단해서 보고를 할 때에 그 정탐보고를 듣는 자들이 또한 자기 식으로 듣고 판단을 하며 난리가 납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을 상황이 37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5감관을 바로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함을 뜻합니다. '5감관을 바로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좋다, 나쁘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는데, 원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마음이 직접 반응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눈은 뭐에 사용하는 것이고 5감관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5감관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 내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5감관으로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할 수 없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가정이고 직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죽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활시위의 화살처럼 조준되어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한 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뜻의 활시위가 당겨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향해 날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세나 경제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귀로 듣습니다. 이럴 때에 걱정하거나 직접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듣는 상황에 대해 죽고 마음이 들은 상황에 붙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경제 상황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경제상황인 돈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경제상황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의 활시위가 내 마음을 화살처럼 쏠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에도 살아계시고 내 눈으로 뭘 볼 때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린 다음에,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 원래 5감관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타락시킨 후에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이 오해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며 직접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의 이야기는 전부 5감관을 잘못 사용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계산된 계획대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호밥보다 무지한 눈과 호밥보다 무지한 경험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광야 생활이 아무리 척박하게 펼쳐질지라도 호밥보다 무지한 눈과 귀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걸기가 십자가 생활화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생활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갑니까? 내가 눈으로 뭘 볼 때에 마음이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 때에 십자가를 눈에 거는 것이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었고,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먼저 계셨고, 저것이 없어진 뒤에도 계속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데 길이 한 길 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5감관이 작용할 때마다 십자가 걸기를 통해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라고 지금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호밥이 인도하는 대로 진을 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일 년을 머물면 일 년을 머물렀고 한 달을 멈추면 한 달을 진을 쳐야 했습니다. '호밥이 경험이 많으므로 불러내서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는 '무지한 선민 250만 명에게 너희의 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 호밥보다 무지한 눈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밥도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고 했지만 나중에 삿4:11절에 보

면 결국 모세의 처갓집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인도한 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호밥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밥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5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 한 가운데라도 바닷물을 세운 후에 텐트를 치게 하십니다. 거기에 무슨 호밥의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5감관의 올바른 사용법은 5감관의 십자가 걸기로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5감관을 쓰던 대로 사용하면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는 없어요.
직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까? 나한테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렸습니까? 반응하지 말고 죽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너무 못되게 굴어도 마음이 반응하면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됩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뜻을 활시위처럼 쏘아서 못된 상사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5감관의 올바른 사용법이고 십자가를 걸고 올바른 5감관의 사용을 하지 않는 한 십자가 생활화는 불가능하고, 십자가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지로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업이 망하고 암이 걸렸다는 큰일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오늘부터 작고 사소한 일, 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에서부터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올바른 5감관의 사용법을 다시 힘을 내서 익혀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눈과 귀의 올바른 사용법이 곧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5감관으로 접하면서 살아가며 나라와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의 모든 것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때에 올바른 5감관 사용법을 활용함으로서 십자가 생활화를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